

유망 중기, 전북도와 손 잡다

완주서 반도체 트랜지스터 제조업체 시지트로닉스 농기계트랙터 생산업체 울천공업과 투자협약 체결

전북도와 완주군은 지난 16일, 완주군청 군수실(4층)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나석훈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트랜지스터 전문제조기업인 시지트로닉스 및 농기계부품 전문제조기업인 울천공업 등 2개 기업과 완주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을 체결한 시지트로닉스는 완주테크노밸리산단에 60억 원 투자, 20명 정도 신규고용인원을 창출할 예정이며 울천공업 또한 같은 산단에 30억 원 투자, 15명 정도 신규고용인원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들 2개 기업의 투자가 성공적으

로 마무리될 경우 작지만 35여개의 소중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취업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지트로닉스는 특수 반도체 장치 및 재료에 중점을 둔 기업으로 미래의 반도체 사업 분야에서 세계 정상급 기업이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또한 농기계부품 전문제조기업인 울천공업은 2005년 회사 창립 이후 우수한 품질과 국내의 시장 개척에 매진한 결과 LS엔트론에 소형 및 중

형트랙터 농기계부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현재 생산량의 80%는 수출로 20%는 내수에 판매하고 있다. 나석훈 도 경제산업국장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전북도에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인 바탕 위에 미래지향적 세계 최고의 기업 추구에 박차를 가하여 명실상부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면서, "전북도와 완주군도 투자에 만족하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해외 진출기업’ 사인주얼리·보명주방공예품, 도-익산시와 투자협약

해외진출기업인 사인주얼리, 보명주방공예품(주)은 16일 익산시청에서 전라북도 및 익산시의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실규중 사인주얼리 대표, 최재운 보명주방공예품 대표, 민중기 민간유치단체장, 소병홍 익산시의회의장, 박중대 익산시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중국 위해, 청도 등지에서 해외진출

제3일반산단 내 입주 기업에 대한 국내복귀·유치활동을 펼친 결과 두 기업이 적극 호응해 투자절정을 하고 업무협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사인주얼리는 익산시가 초기자본이 부족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의 임대형 공장에 입주할 예정으로 임대형 공장이 2018년 도 하반기 준공되면 입주할 계획이며, 5억 설비투자와 약 30여 명의 신

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또한 사인주얼리는 2002년에 중국 청도로 이전한 100% 수출기업으로 현재는 연간 약 500만불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설 대표는 재중국 한국공예협회 4대 및 5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다. 한편 보명주방공예품(주)은 2018년도에 제3일반산업단지 내 패션단지에 5,000㎡ 분량을 받아 입주할 계획이며, 50억 투자, 약 3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익산=장원원 기자

전북도지사 인증 로컬푸드 직매장

33곳 중 11곳 기준 통과

전북도가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사업이 지난 15일 기준, 33개 직매장 중, 11개 소가 인증 기준을 통과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인증된 매장은 전북삼라로컬마켓·완주로컬푸드 소속 3개소(하가점, 둔산점, 삼천점) 등 4개 로컬매장이 인증을 통과했다. 인증 기간 만료로 재인증을 신청한 용진농협 직매장과 완주로컬푸드 소속 효자점·모악점은 재인증에 성공했으며, 2개소는 총족 미달로 탈락했다. 군산 육산 로컬, 익산 로컬, 남원원협 로컬, 동진계 로컬매장은 지난 2017년도에 인증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로컬푸드 직매장 인증사업은 소비자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지속가능한 로컬푸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으로 생산농장과 가공과정까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유동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가 지난 16일, 도청에서 탄소산업의 주요현안과 정책발굴 및 탄소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제2기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전북 탄소산업 정책 발굴·육성 총괄

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출범

전북도는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탄소산업의 주요현안과 정책발굴 및 탄소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제2기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정호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탄소산업발전위원 20명과 분과별 실무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위원장 선출, 제2기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탄소소재 상용

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R&D용 탄소소재 및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과 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등 탄소산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간 MOU를 체결했다. 제2기 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전북도내·외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탄소산업 전문가 2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하부조직으로 3개 분과에 실무위원 31명으로 구성·운영된다. 분과별 실무위원회는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간사역할을 담당하며 탄소산업의 정책발굴 및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

련하면, 탄소산업발전위원회에서 최종방향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인 최정호 정무부지사는 출범식에서 "앞으로 탄소산업의 성장속도를 앞당기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고비용 제조공정 문제 및 탄소제품 인증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한 R&D와 시장창출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 마련 등 국가정책으로 반영시킬 정책과 시책 발굴 기능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중심으로 그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글로벌 해외연수생 선발 접수

전북도와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이사장 최병균)은 지난 16일부터 2018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을 위한 서류접수를 시작했다. 2018년에는 초등학생(5~6학년) 348명, 중학생 372명, 대학생 4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처음 실시하는 중학교(2~3학년) 미국 단기해외연수사업(3주)과 대학생 그룹과제 연수사업(4팀, 2주 이내)은 관심을 갖는 2018년 신규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초·중학생은 6주(집중어학연수 4주, 정규학교 2주)동안 영어권(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과 중국어권(중국)으로 연수가 가능하며, 영어권은 60%, 중국어권은 80% 지원받는다. 대학생은 개인별 연수프로그램에 의해 25주까지 영어권, 중국어권, 기타 어학권으로 연수가 가능하다. 최종합격자 발표는 5월 18일에 도청,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각 시군 홈페이지에 발표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홈페이지와 전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선제적 대응 나섰다

군산시,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 제출

군산시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발표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시는 지난 15일 전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의회의 안건으로 '군산시 고용위기지역 심의'를 상정하고 고용현황과 지정의 필요성 등을 설명했으며, 협의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시에서 지방노동관청인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협의를 완료하고 상정된 것으로, 지정신청을 위한 모든 법적절차를 완료

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향후 고용노동부 조사단이 현장을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특별지원, 실업급여 특별연장, 실업자 종합지원대책 수립 등 고용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우선적이고 특별한 재정지원 등을 받게 된다. 특히 시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군

산지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업자를 위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창업 및 전직, 재취업 지원, 직업훈련, 생계긴급구호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익석 일자리담당관은 "GM군산공장 폐쇄결정 발표에 따른 대량실직이 현실화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 고용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신청을 마무리했다"고 전하며, "고용노동부 현장실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실직대책사업에 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전방위적 대응체제를 구축해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관복 기자

“국회 합의 기다릴수만 없다”

“주어진 시간 압박”… 靑,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청와대는 지난 16일 국회 개헌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완전히 압박해 있는 단계로 국회 합의를 기다리지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합의가 잘 되면 좋지만 안 된다면 모처럼 맞게 된 개헌의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추천하겠다는 것도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며 "선출이든 추천이든 사실상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많은 헌법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은 현행 대한민국 통치체제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형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갖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헌법이 근간으로 하고 있는 삼권분립이라는 질서와 정

“분권·혼합형 대통령제 본질은 의원내각제 총리 임명·감사원 이관… 국회 권한만 강화”

그러면서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월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때 발의하면 실제로 처리되는 것은 3개월 후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결국 지방선거에서 동시투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말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국회는 더 논의할 시간이 있다"며 "국회가 합의하자고만 들면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지방선거 때 개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는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혼합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다"며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와 이원집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분권형', '혼합형'이라는 말로 포장해 왔다"며 "그렇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게 되고 국무총리가 국정을 모두 통할하는 체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은 말

신을 위배하는 것이고 입법·사법·행정부 사이의 균형을 흐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력구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하고 있다"며 "1차 연임제가 됐든, 대통령중심제가 됐든, 현행 5년 단임제가 됐든 간에 국민의 절대 다수가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국회의 헌법 개정 논의를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갖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의 전속 권한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또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서 정부의 증액동의권도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다.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내에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 추천·선출권에 대해서 법안제출권, 예산법률주의, 감사권, 인사권을 전부 국회로 이관해 간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의원내각제"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렵다.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홍보 프로슈머' 위촉식을 열었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선거 정보,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전북도선관위, 파워블로거 구성 ‘홍보 프로슈머’ 위촉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홍보 프로슈머'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홍보 프로슈머'는 'producer'와 'consumer'의 합성어로 '생산적 소비자'를 의미하며,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위원회에 제공하고 동시에 유권자에게 다양한 선거정보나 선거이야기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홍보 프로슈머' 20명은 도내 파워블로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선거일까지 도선관위 공식 블로그(https://blog.naver.com/jbelection) 및 개인 블로그 등 SNS에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참여(회망)·축제·화합의 아름다운 선거 가치가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선거기사와 카드뉴스, 영상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소통형 등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여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선거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